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 정신건강 문해력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among Older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al Health Literacy

권 소 연** 이 영 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Soyeon Kweon Young So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고령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지니더라도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살폈으며, 또 정신건강 문해력과 사회적 지지가 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문해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자는 65세에서 83세 사이의 고령자 30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온라인 연구 패널 전문 회사의 회원들이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해력을 비롯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했으며, 자료 분석의 주요한 방법은 구조 모형의 검증과 매개효과 분석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문해력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정신건강 문해력은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도움 추구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며, 그 문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사업(전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우)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코칭연구소, 권소연 박사과정 (email: ksy5691@jbnu.ac.kr)

*** Correspondence to: (우)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이영순 (Young Soon Lee) 교수 (email: leeys@jbnu.ac.kr)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은 지인과의 상호작용 장려를 비롯하여 고령자에게 사회적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보호자나 가족 대상의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주제어 :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 추구, 정신건강 문해력, 노인 상담

(Abstract)

Older adults tend to be reluctant to seek professional help even if they have mental health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help-seeking attitudes of older adults regarding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nd also aimed to confirm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liter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attitud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iterac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300 older adults aged between 65 and 83 years, all of them were members of an online research panel company. They were measured for levels of the mental health literacy, help-seek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and the primary methods of data analysis we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social support influenced the mental health literacy but not the help-seeking attitudes. The mental health literacy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lp-seeking attitudes. The findings imply that older adults need a high level of mental health literacy in order to actively seek professional help when experiencing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at social support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level of literac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encouraging older adults to interact with acquaintances who have a high level of mental health literacy as well as the need for literacy enhancement programs targeting caregivers or family members who can serve as social supporters for the adults,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Key words : Social support, Professional help-seeking, Mental health literacy, Older adults counseling

I. 서론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평생에 걸쳐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무려 27.8%에 해당한다(NCMH, 2021). 그러나 정신질환 문제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이 13.9%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Kweon & Lee, 2023). 이와 같은 편차는 정신건강 서비스 의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정신질환과 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Plaistow, Masson, Koch, Wilson, Stark, Jones, & Lennox, 2014). 우리나라의 상황도 전 연령대에 걸쳐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그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H. Kim, 2019).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생애주기에서 겪는 퇴직이나 배우자 사망, 사회관계 단절 및 신체적 능력 감소 등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인해 무기력감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되면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Reynolds, Pietrzak, El-Gabalaw, Mackenzie, & Sareen 2015). 곧 노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Frias & Whyne, 2015),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E. Lee, Kang, & Jung, 2013).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세대보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하려거나 받을 가능성이 더 낮고, 도움을 구하더라도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Adams, Gringart, Strobel, & Masterman, 2021).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 체면을 중요시하는 성향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겪더라도 타인과 상의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하기보다 스스로 극복하거나 참아내는 경향을 보인다(S. Choi & Kim, 2000; S. Lee & Choi, 2001). 이러한 경향은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저하를 비롯하여 편견과 낙인으로 이어지게 한다(Oh & Lee, 2012). 이는 전술한 바처럼 고령일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해짐을 의미하는데, 치료에 대한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설명하는 모델로는 1960년대에 개발된 Andersen(1968, 1995)의 행동모델(behavioral model)을 위시로 Saleebey(2000)의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s model), Fishbein(1979)의 합리적 행위(reasoned action), Ajzen(1985)의 계획 행동(planned behavior) 이론 등 여러 모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진 개인의 도움 추

구 과정이나 행위를 항상 개인 내적 요인의 작동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므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내적 및 외적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고령자에 국한해서 설명하면, 그들이 심리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Bartels, Coakley, Zubritsky, Ware, Miles, Areán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추구 행위를 친구나 가족 등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의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인 치료 시스템하고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모델(NEM-II, Network Episode Model-II)이 등장했다(Pescosolido, 1991).

NEM-II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마다 그 이유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선택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외부 사회적 체계와의 교류와 협력 등 복잡한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Pescosolido, 2013). 우울증으로 도움을 추구한 고령자 대상의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Lawrence, Banerjee, Bhugra, Sangha, Turner, & Murray, 2006), 고령자들은 우울증을 겪더라도 일차적으로는 혼자 해결해야 할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외부 도움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부수적인 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차 의료기관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생의 후반기에 나타난 우울증의 원인이나 관리에 관한 면접 조사에서도 의료인들조차 제대

로 치료가 안 된다는 치료적 허무주의 관점을 보였으며, 또 환자들도 그 관점에 동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Burroughs, Lovell, Morley, Baldwin, Burns, & Chew-Graham, 2006). 그와 같은 관점은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제반 능력이나 지식, 신념, 즉 정신건강 문해력(mental health literacy)이 낮음을 의미하는데(Jorm, 2000), 이는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령자 대상의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Ghesquiere, Shear, & Duan, 2013). 이러한 현상이 고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치료 자원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Beatie, Mackenzie, Thompson, Koven, Eschenwecker, & Walker, 2022).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란 심리적인 문제로 개인이 어려움을 느낄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관련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이른다(Kushner & Sher, 1991). 전문적 도움 추구는 친지에게 단순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E. Kim, Choi, & Lee, 2018), 그 태도는 개인의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예측하게 해준다(Fisher & Turner, 1970; Y. Shin & Ahn, 2005). 일반적으로 그 태도가 약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전문적인 도움 추구가 아니라 혼자서 해결을 시도하거나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주변 자원들을 활용하므로 문제가 줄어들지 않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D. Kim & Yang, 2010; Leong & Zachar, 1999).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Miville & Constantine, 2006).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특히 그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변인이다. 이는 전 생애 동안 여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물질을 주고받으며,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일종의 연결에 해당한다(Cohen & Hoberman, 1983; S. Lee, 2017). 이는 역시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구적 기능이나 정서적 기능도 발휘하고 있다(S. Lim & Noh, 2014).

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사회적 지지를 위한 관계망 확보가 중요하지만, 대인관계의 폭이 축소되는 생의 후반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Jun, 2004).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와 같은 도움의 긍정적 인식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는 행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Larose, Bernier, Soucy, & Duchesne, 1999; Tata & Leong, 1994),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보였다(J. Shin & Park, 2010). 도움 추구 행위를 주저하거나 불편하게 여긴 사람도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면 불편함이 줄어들어 도움 추구 태도가 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S. Lim & Noh, 2009; Yoo & Lee, 2006). 심리적인 문제를 지닌 고령자들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도움 추구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고령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이를 신체 건강 문제처럼 인식

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의사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Philips & Murrell, 1994),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서도 보였다(Joo, 2009). 물론 그러한 고령자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도움 추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행위가 모두 자발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인의 권유나 설득에 이끌려 찾게 된다(Thoits,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가관리(self-care) 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정신건강 문제 자가 진단, 정신건강 관련 정보의 제공, 스크리닝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및 의료기관 연계 및 지원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각 교육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 관공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도 제시하였다(Baik, Lee, & Nam, 2018; Chung, Lee, Park, & Lim, 2016). 이와 같은 안들은 모두 보편적 서비스로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방 차원의 안이라도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관리, 예방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정신건강 문

해력이 수반되었을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Seo & Rhe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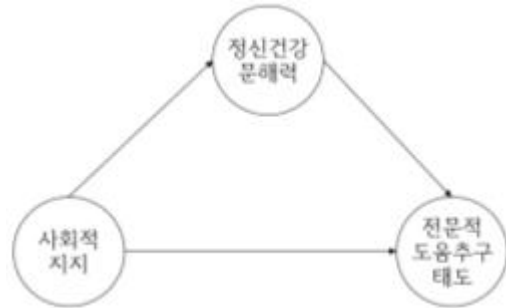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고령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찾는 것보다 일반 병원을 내원하는 경향을 보였다(Leong & Lau, 2001; Philips & Murrell, 1994). 또 노년기의 우울 증상은 일반 의료인조차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우울증을 겪는 고령의 당사자도 이를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나 피로라고 여기면서 전문적 도움을 잘 추구하지 않는다(Ouchida & Lachs, 2015). 이는 고령자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즉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을 높여 노화와 심리적 어려움을 구별할 수 있게 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해력 관련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이 더 낮은 편이었고(S. Kang, Seo, Park, Lee, Kim, & Im et al., 2023), 또 고령자를 청년이나 중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이 더 낮은 편이었다(S. Chung et al., 2016). 이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건강 문해력 관련 수많은 연구는 공통으로 도움 추구 행위나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Gorczynski, Sims-Schouten, Hill, & Wilson, 2017; Jung, Sternberg, & Davis, 2017; Smith & Shochet, 2011; Waldmann, Staiger, Oexle, & Rüsch, 2020). 예를 들면, 건강정보 문해력이 높은 경우 자신의 우울 증상

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전문적 도움 요청의 가능성이 높지만, 문해력이 낮은 경우 우울 증상을 스트레스 등으로 인식하여 도움 요청을 하지 않거나 요청이 늦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Chung et al., 2016). 다행히 문해력이 낮은 자에게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문해력을 높일 수 있으며(Y. Kim, Lee, Lee, Simms, & Park, 2017), 문해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건강 관련 정보나 자원에 접근하게 된다(S. Lee, Arozullah, & Cho, 2004; J. Shin & Park, 2010).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찾는 과정과 치료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회적 차원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NEM-II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여기에서 사회적 차원이란 고령자가 신뢰하는 지인이나 사회적 체계와의 상호 교류 등을 의미한다. 역시 고령자는 그와 같은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관련 지식 함양은 물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시도(예, 도움 추구) 능력, 즉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해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신건강 문해력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때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려 한다는 그리고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아지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역시 더 긍정적이라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했다. 즉 정신건강 문해력은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연구모형



II.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성 150명과 여성 15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2세($SD=3.87$)이었고, 대다수가 60대(65.7%, $n=197$)였던 반면에 70대는 31.3%($n=94$) 그리고 80세 이상의 비율은 3%($n=9$)였다. 평균연령에서 남성(69.6세, $SD=3.87$)과 여성(69.8세, $SD=3.85$)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 연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약 2.3%($n=7$), 고등학교 졸업이 약 31.7%($n=95$)였던 반면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또 연구 대상자 중에서 정신건강 관련 심리 상담을 받아본 경험 있는 비율은 12%(남성 15명, 여성 21명) 정도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결혼 상태로는 조사 당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2.3%($n=247$)이었고, 이혼이나 사별의 비율이 각각 8.3%($n=25$)와 5.3%($n=16$) 그리고 미혼 상태의 비율은 4.0%($n=12$)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거주지역 관련 정보는 서울 33.0%($n=99$),

부산 4.7%($n=14$), 대구 4.3%($n=13$), 대전 2.7%($n=8$), 광주 3.0%($n=9$), 인천 9.0%($n=27$), 울산 3.0%($n=1$), 경기 22.0%($n=66$), 충북 1.3%($n=4$), 충남 3.3%($n=10$), 경북 3.3%($n=10$), 경남 4.3%($n=13$), 전북 3.0%($n=9$), 전남 1.7%($n=5$), 강원 2.0%($n=6$), 그리고 제주 1.3%($n=4$)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로 자료를 수집했는데, 설문지는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7문항(성별, 나이, 교육 수준, 월 평균소득, 결혼 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상담 경험을 묻는 문항 각각 하나였음),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관한 19문항, 매개변인인 정신건강 문해력에 관한 18문항, 그리고 종속변인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29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Shakespeare-Finch와 Obst(2011)의 양방향 사회적 지지척도(2-way 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했는데, 이는 자신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그에게 그와 같은 지지의 제공 여부 또는 수준의 측정이었다. 본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지지를 받거나 제공하는 당사자를 동거인으로 한정해 버린 ‘When someone I lived with was sick I helped them.’이라는 문항을 제외한 19문항으로 측정했다. 본 척도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 수혜” 11문항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제공” 8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0점(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이었다. 자료 분석 시 요인이나 전체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를 투입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인과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2-way SSS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사회적 지지 수혜 .94, 사회적 지지 제공 .90, 그리고 전체 척도는 .95였다.

2) 정신건강 문해력

정신건강 문해력은 H. Kim(2019)이 O'Connor와 Casey(2015)의 ‘Mental Health Literacy Scale’를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척도로 측정했다. 본 척도는 4개 요인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6문항, “도움 추구 효능감” 5문항, “각각 정신질환의 인지능력” 3문항, 그리고 “정신질환 및 정신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식” 4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었다. 자료 분석 시 총점이나 요인의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를 투입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정보 문해력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MHLS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87, 도움 추구 효능감 .63, 각각 정신질환의 인지능력 .74, 정신질환 및 정신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식 .22, 그리고 전체 척도는 .74였다.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척도의 한국어판을 활용하여 측정했다(Y. Shin & Ahn, 2005). 본 척도는 4개 요인의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8문항, “낙인에 대한 내인성” 5문항,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7문항,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 9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였다. 자료 분석 시 요인이나 전체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를 투입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도움 태도가 더 긍정적인데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3이었는데, 하위 요인별로는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62, 낙인에 대한 내인성 .67,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25,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 .76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8월 한 온라인 패널조사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얻은 것이었다. 해당 업체는 설문조사의 응답에서 결측치가 없는 상태의 65세 이상 남녀 150명씩의 패널 자료를 연구자에게 전달했으며, 그 업체에서는 응답자에게 규정에 따라 추후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8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했다. 자료 분석 시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

R의 4.2.3의 lavaan 패키지를 사용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노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문해력,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문해력, 그리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했다. 여기에 제시된 척도 및 하위 요인의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로 점수 범위가 사회적 지지는 0-5점, 그리고 정신건강 문해력 및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1-4점이었다. 그리고 <Table 2>는 그 변인 및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설정된 측정 모형의 관측 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시행하였다. 우선 연구 변인인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문해력, 그리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측

<Table 1> Basic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i>M (SD)</i>
사회적 지지 (0-5점)	3.24 (.76)
사회적 지지 수혜	3.22 (.88)
사회적 지지 제공	3.27 (.72)
정신건강 문해력 (1-4점)	2.50 (.27)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1.99 (.51)
도움 추구 효능감	2.84 (.38)
정신질환 인지 능력	2.63 (.49)
정신질환 및 정신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식	2.75 (.35)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1-4점)	2.75 (.26)
도움에 대한 필요성	2.58 (.35)
낙인에 대한 내인성	2.97 (.37)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2.56 (.26)
전문가에 대한 신뢰	2.94 (.35)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tudy variables

	1.	1_1	1_2	2.	2_1	2_2	2_3	2_4	3.	3_1	3_2	3_3
1_1	.97***											
1_2	.19***	.20***										
2.	.31***	.29***	.37***									
2_1	.18***	.17***	.21	.79***								
2_2	.34***	.27***	.27	.68***	.30***							
2_3	-.03	-.04	.03	.29***	-.07	.11*						
2_4	.23***	.23***	.42***	.49***	.23***	.19**	-.05					
3.	.36***	.37***	.85***	.43***	.22***	.35***	.06	.45***				
3_1	.15***	.15***	.79***	.32***	.18***	.20***	.06	.37***	.84***			
3_2	.32***	.31***	.58***	.33***	.18***	.32***	.02	.29***	.68***	.43***		
3_3	.25***	.27***	.46***	.22***	.09	.24***	-.01	.23***	.59***	.31***	.31***	
3_4	.38***	.39***	.70***	.41***	.20***	.33***	.08	.44***	.87***	.66***	.48***	.36***

주. *** $p < .001$

1 사회적 지지, 1_1 사회적 지지 수혜, 1_2 사회적 지지 제공, 2 정신건강 문해력, 2_1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2_2 도움추구 효능감, 2_3 정신질환 인지능력, 2_4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식,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3_1 도움에 대한 필요성, 3_2 낙인에 대한 내인성, 3_3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3_4 전문가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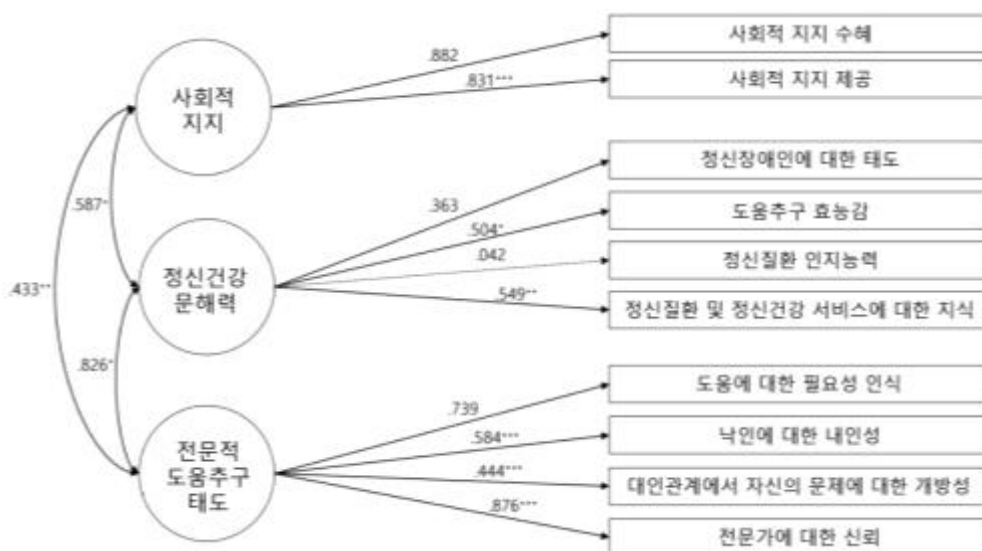
정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MSEA가 .079, CFI가 .925, 그리고 TLI가 .894로 비교적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관측된 연구 변인들이 각각 잠재 변인으로서의 속성을 잘 반영하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the measurement model

연구 변인	하위 요인	Estimate		S.E.	C.R.
		<i>b</i>	β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수혜	1	.882		
	사회적 지지 제공	.767	.831	.152	5.038***
정신건강 문해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1	.363		
	도움 추구 효능감	1.060	.504	.416	2.549*
	정신질환 인지능력	.112	.042	.335	.333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1.045	.549	.398	2.628**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1	.739		
	낙인에 대한 내인성	.826	.584	.163	5.078***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449	.444	.116	3.860***
	전문가에 대한 신뢰	1.165	.876	.172	6.763***

Not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Figure 2>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the measurement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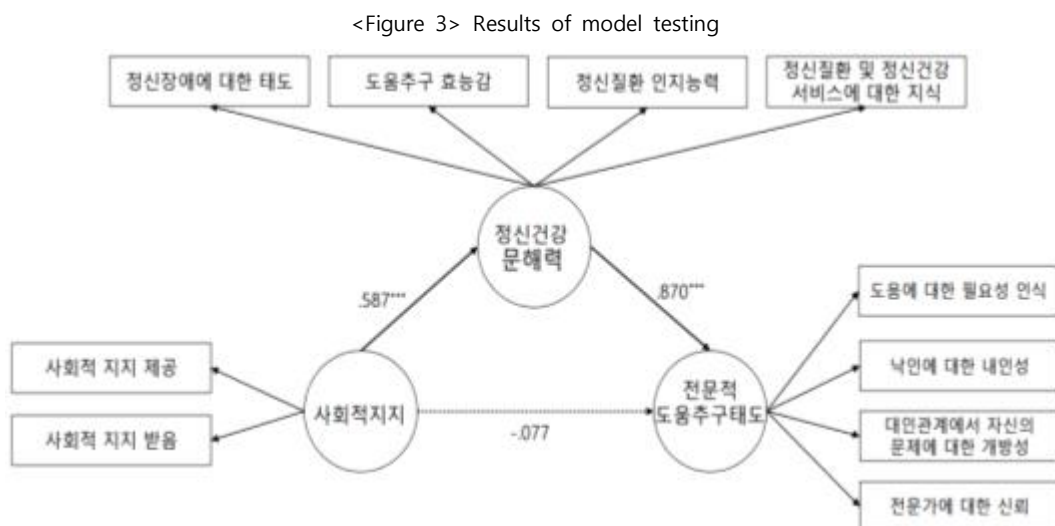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에 포함된 관찰 변인의 계수를 측정한 결과(<Table 3> 참조), 사회적 지지의 표준화 계수는 .831과 .882 그리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표준화 계수는 .444~.876로 나타나 잠재 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해력의 표준화 계수는 .042~.549로 하위 묶음 중 정신질환의 인지능력 요인에 대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해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바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문해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87, p<.001$),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7, n.s.$). 다음으로 정신건강 문해력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70, p<.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문해력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11, p<.001$). 이상의 분석 결과는 <Figure 1> 처럼 시각화할 수 있다.

<Table 4> Mediation effects of mental health literacy

경로			<i>b</i>	β	<i>S.E.</i>	<i>p</i>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문해력	.139	.587	.031	.000
사회적 지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26	-.077	.045	.564
정신건강 문해력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237	.870	.330	.000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문해력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72	.511	.047	.000



IV. 논의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겪으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비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될 시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중에 전문적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성인들의 상당수는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K. Kim & Park, 2023; H. Kim, 2019).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대다수가 노화나 질환, 장애 발생에 의한 건강 악화, 역할상실, 사별, 퇴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울 증상이다(Chang & Lyu, 2020). 노년기의 우울 증상은 일반 의료인조차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우울증을 겪는 고령의 당사자도 이를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나 피로라고 여기면서 전문적 도움을 잘 추구하지 않는다(Ouchida & Lachs, 2015).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시 이를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과 구분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해력이

미치는 영향 및 그 경로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연구 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로 논의하였다. 이들은 ①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문해력이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② 문해력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③ 사회적 지지와 태도의 관계에서 문해력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기대했던 바처럼 정신건강 문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사회적 지지는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구적 기능이나 정서적 기능을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Kim et al., 2017; S. Lim & Noh, 2014).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S. Lim & Noh, 2009; Yoo & Lee, 2006), 고령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도움을 추구하지는 않는다(Shin & Ahn, 2005; Thoits, 2011). 그 이유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이용이 가능한 치료 자원이나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Beatie et al., 2022), 이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문해력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정신건강 문해력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한 바처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연구처럼 문해력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도움 추구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Gorczynski et al., 2017; Jung et al.,

2017; Smith & Shochet, 2011; Waldmann et al., 2020). 그와 같은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고령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문해력이 낮을 시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 추구가 늦어져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Chung et al., 2016; Kim & Park, 2023). 그 결과는 역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여야 도움 추구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즉 문해력의 매개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해력은 기대한 바처럼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이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이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지 않은 편이다(S. Chung et al., 2016; S. Kang et al., 2023). 이에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정보 관련 사회적 지지, 특히 건강정보 관련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고령자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나 태도 증진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가관리(self-care) 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를 토대로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전개되고 있는데, 사업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개인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이 2016년 9.4%에서 2019년 41.6%로 증가하였고, 해가 갈수록 기초 센터의 치료 연계율이 향상되어 전문의 상담 횟수가 2016년 월평균 20건에서 2019년 133건으로 약 6.5배 늘었다(Jhon, Wang, Kim, Lee, Kim, & Shin, 2021).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문해력 향상을 통하여 고령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논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이라서 전체 고령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들 모두 온라인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 자로 일반 고령자 집단보다 학력이 더 높은 자(70%가 대학교 졸업 이상)였다. 이는 노인의 정보격차를 고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내용이 실제 응답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측정했는지 아니면 주관적 이해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측정했는지를 가늠하기가 애매했다는 점이다. 이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고령자의 평상시 생각과 행동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력 향상에 관련된 변인으로 오직 사회적 지지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등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easley, Kiser, & Hoffman, 2020).

그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지닐 때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아야 함을 그리고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력 증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은 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사회적 지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 보호사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고령자의 문해력 증진이나 도움 추구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Adams, C., Gringart, E., Strobel, N., & Masterman, P. (2021). Help-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73(4), 426-437.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 (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Heidelberg: Springer.
- Andersen, R. (1968). *A behavioral model of families' us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Series no. 25. Chicago, IL: Center for Health Administration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 Andersen, R.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 1-10.
- Baik, J., Lee, H., & Nam, H. (2018). Research trend analysis of health and mental health literacy in Korea: 2007-2017.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2 (3), 95-106.
- Bartels, S., Coakley, E., Zubritsky, C., Ware, J., Miles, K., Areán, et al. & PRISM-E Investigators. (2004). Improving access to geriatric mental health services: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treatment engagement with integrated versus enhanced referral care for depression, anxiety, and at-risk alcohol 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8), 1455-1462.
- Beasley, L., Kiser, R., & Hoffman, S. (2020). Mental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stigma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Work*

- in *Mental Health*, 18 (6), 634-650.
- Beatie, B., Mackenzie, C., Thompson, G., Koven, L., Eschenwecker, T., & Walker, J. (2022). Exploring older adults' experiences seeking psychological services using the network episode model. *Ageing & Society*, 42 (1), 48-71.
- Burroughs, H., Lovell, K., Morley, M., Baldwin, R., Burns, A., & Chew-Graham, C. (2006). Just if I able depression: How primary 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s view late-life depression? A qualitative study. *Family Practice*, 23 (3), 369 - 377.
- Chang, H., & Lyu, J. (2020).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 (4), 1597-1614.
- Choi, S., & Kim, K. (2000).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Korean social fac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 (1), 185-202.
- Chung, S., Lee, M., Park, C., & Lim, J.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literacy using Andersen and Newman's Model: A comparison between older adults and other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 (3), 193-218.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2), 99-125.
- Cohen, S., & Will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 Bull.* 98, 310 - 357.
- de Frias, C., & Whyne, E. (2015). Stres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The protective nature of mindfulness. *Ageing & Mental Health*, 19 (3), 201-206.
- Fishbein, M. (1979). A theory of reasoned action: Some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7, 65 - 116.
- Fisher, E., & Turner, J.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1), 79-90.
- Frias, C., & Whyne, E. (2015). Stres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The protective nature of mindfulness. *Ageing & Mental Health*, 19 (3), 201-206.
- Ghesquiere, A., Shear, M., & Duan, N. (2013). Outcomes of bereavement care among widowed older adults with complicated grief and depression. *Journal of Primary Care & Community Health*, 4 (4), 256-264.
- Gorczynski, P., Sims-Schouten, W., Hill, D., & Wilson, J. (2017). Examining mental health literacy, help seeking behaviours,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UK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Mental Health Training, Education and Practice*, 12 (2), 111-120.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 1-55.
- Jhon, M., Wang, S., Kim, S., Lee, J., Kim, J., & Shin, I. (2021). Roles of psychiatrists in mental health services: The Gwangju mental health project "Mind doctor".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 (1), 70-77.
- Joo, Y. (2009). Development of counseling-education model for successful aging for older adul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 (1), 17-42.
- Jorm, A. (2000). Mental health literacy: Public knowledge and beliefs about mental disorde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7 (5), 396-401.
- Jun, H. (2004). Providing social support to other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USA. *The Korean Gerontological Research Society*, 24 (1), 89-105.
- Jung, H., von Sternberg, K., & Davis, K. (2017). The impact of mental health literacy, stigma, and social support on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help-see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19 (5), 252-267.
- Kang, S., Seo, J., Park, S., Lee, K., Kim, Y., Im, W., Lee, M., & Jun, J. (2023).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literacy - The analysis of Mental Health Literacy Survey 2021.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31 (1), 33-41.
- Kim, D., & Yang, D. (2010).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alment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behavior. *Korean Education Inquiry*, 28 (2), 95-108.
- Kim, E., Choi, Y., & Lee, M. (2018).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on quality of lif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Mental Health & Social Work*, 46 (2), 179-208.
- Kim, H. (2019). A validation study on the Korean version of mental health literacy scale (MHLS-K)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7 (2), 35-66.
- Kim, K., & Park, S. (2023). Factors related to perception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attitudes for help-seek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28 (1), 1-8.
- Kim, Y., Lee, H., Lee, M., Simms, T., & Park, B. (2017). Mental health literacy in Korean older adults: A cross-sectional survey.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4 (7), 523-533.
- Kushner, M., & Sher, K.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 (3), 196-203.
- Kweon, S., & Lee, Y.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 help-seeking attitudes in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5 (4), 1943-1515.
- Larose, S., Bernier, A., Soucy, N., & Duchesne, S. (1999). Attachment style dimensions, network orientation and the process of seeking help from college teac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2), 225-247.
- Lawrence, V., Banerjee, S., Bhugra, D., Sangha, K., Turner, S., & Murray, J. (2006). Coping with depression in later life: A qualitative study of help-seeking in three ethnic groups. *Psychological Medicine*, 36, 1375 - 1383.
- Lee, E., Kang, J., & Jung, J. (2013).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of aged peop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 (7), 290-300.
- Lee, S. (2017).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reation and social net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i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 (9), 397-406.
- Lee, S., Arozullah, A., & Cho, Y. (2004). Health literacy, social support, and health: A research agenda. *Social Science & Medicine*, 58 (7), 1309-1321.
- Lee, S., & Choi, C. (2001). Two-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 (2), 65-83.
- Leong, F., & Lau, A. (2001). Barriers to providing effective mental health services to Asian Americans.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3, 201-214.
- Leong, F., & Zachar, P. (1999). Gender and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7 (1), 123-132.
- Lo, C., Chen, I., Ho, W., & Cheng, Y. (2023). A sequential mediation mod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indfulness, perceived hope, and mental health literacy: an empirical study on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Acta Psychologica*, 240, 104016.
- Lim, S., & Noh, A. (2009).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help seeking inten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 (3), 1383-1396.
- McPherson, M., Smith-Lovin, L., & Cook, J.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1), 415-444.
- Miville, M., & Constantine, M. (2006). Sociocultur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help-seeking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 (3), 420-432.
- NCMH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Registered Number of Report:

- 11-1352629-000065-01]. Seoul, Korea: NCMH of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O'Connor, M., & Casey, L. (2015). The mental health literacy Scale (MHLS): A new scale-based measure of mental health literacy. *Psychiatry Research*, 229, 511-516.
- Oh, D., & Lee, J. (2012). Depression health literacy and help-seeking intention of the aged receiving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 (3), 276-285.
- Ouchida, K., & Lachs, M. (2015). Not for doctors only: Ageism in health care. *Generations*, 39 (3), 46-57.
- Pescosolido, B. (1991). Illness careers and network ties: A conceptual model of utilization and compliance. *Advances in Medical Sociology*, 2, 161-184.
- Pescosolido, B. (2013).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What do we think; What do we know; What can we prov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4 (1), 1-21.
- Plaistow, J., Masson, K., Koch, D., Wilson, J., Stark, R, Jones, P., & Lennox, B.- (2014). Young people's views of UK mental health services.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8 (1), 12-23.
- Reynolds, K., Pietrzak, R., El-Gabalawy, R., Mackenzie, C., & Sareen, J. (2015).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in US older adults: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World Psychiatry*, 14 (1), 74-81.
- Saleeb, J. (2000). Health beliefs about mental illness: A an instrument development study.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4 (2), 83 - 95.
- Seo, M., & Rhee, M. (2013). Mental health literacy and vulnerable group analysis of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 (2). 313-334.
- Shakespeare-Finch, J., & Obst, P. (2011). The development of the 2-Way Social Support Scale: A measure of giving and receiving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 (5), 483-490.
- Shin, J., & Park, H.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professional help seeking-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tigma.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2 (4), 231-256.
- Shin, Y., & Ahn, H. (2005). The relative importance of approach factors and avoidance factors in predicting professional help seek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 (1), 177-195.
- Smith, C., & Shochet, I. (2011). The impact of mental health literacy on help-seeking intentions: Results of a pilot study with first year psycholog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13 (2), 14-20.
- Tata, S., & Leong, F. (1994). Individualism-

- 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 280-287.
- Thoits, P. (201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voluntary, mixed, or pressured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Society and Mental Health*, 1 (1), 4-19.
- Waldmann, T., Staiger, T., Oexle, N., & Rüsch, N. (2020). Mental health literacy and help-seeking among unemployed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Journal of Mental Health*, 29 (3), 270-276.
- Yoo, Y., & Lee, J. (2006).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self conceal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 (2), 441-460.
- Received: February 26, 2024
Revised (first form): May 26, 2024
Revised (final form): October 28, 2024
Accepted: November 1, 2024